

고흥군, 상반기 인구정책 효과 '톡톡'

전년 대비 인구 감소폭 둔화...출생아 수 증가 다양한 정책 통해 인구 늘리기 효과 나타나

고흥군이 저출산·고령화로 매년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었으나 민선 7기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구정책 효과를 신실, 다양한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 늘리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고흥군의 올해 상반기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감소는 전년 대비 월 평균 80명에서 57명으로 23명 줄고, 출생아는 월 평균 18.3명에서 23.6명으로

5.3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매년 약 1천여명씩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맞춤형 정책으로 연말에는 인구 감소폭이 전년 대비 17% 줄어들고 출생아 수는 27%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작년 7월 전국 지자체 최초 인구정책과를 신설해 '2022년까지 인구감소율 제로화'를 목표로 고흥군 인구정책 5개년 세부계획에 따른 인구정책

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고흥군은 올해 상반기 △기업 승계 청년 지원 △귀향귀촌 집들이 지원 △귀향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청년 여촌 정착지원 △결혼 장려금 및 출산 장려금 확대 △신생아 백일사진 지원 등 인구유입을 위해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인구문제 극복에 있어 군민 참여를 위해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한 고흥 살기 군민 다짐대회', 일자리 창출 위원회와 저출산 극복민·관 네트워크 구성, 민간주도 행복마을 조성,

지역사회단체 출산 축하꾸러미 전달 사업 등 인구유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썼다.

한편, 고흥군은 하반기에도 △귀향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최대 1억원) △귀향청년 U-tum 정착 지원(1,000만원)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1,000만원) △전입세대 지원금(20만원, 자동차세 10만원, 주민세 감면) 및 장려금 지원(300만원) △청년부부 대출이자(최대 100만원) 및 청년 주거안정 지원(120만원) △청년 도전 프로젝트(1,000만원) 등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고흥=한윤섭 기자



광양시, '토양현장진단 및 처방' 실시

농업인 애로사항 해소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내 시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토양의 상태를 분석하는 '토양현장진단 및 처방'을 실시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양현장진단'은 시설하우스에서 토양의 산도, 염류도, 작물에 부족한 양분, 작물이 양분을 잘 흡수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농가현장진단기법으로, 토양 물리성과 부족한 양분을 파악해 과잉 시비나 불균형 시비, 불필요한 농자재 투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인 작물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현장에서 단시간 내 pH(산도), 수용성 질소, 수용성 인산, 황산이온, 염소이온)의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결과로 토양 상태 및 작물이 양분을 잘 흡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작물의 생육상태에 맞는 양분 공급 등의 처방을 내리고 있다.

시는 앞으로 생육불량 등 애로사항이 발생한 시설하우스 50여 채에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토양현장진단 및 점무, 종합검정실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1-797-3560)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여름철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위해 현장점검

주요 재해위험지구 사업 및 민원현장 방문·지도



순천시는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와 무더위 등 예상되는 재난에 적극적 대응을 대비하기 위해 취약지역 현장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재해대책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기상변화에 따라 단계적인 대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임종필 안전도시국장을 총괄로 하는 현장점검단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주요 읍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등 관내 20개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점검단은 인명피해 우려지역 11개소와 해안가 저지대 매몰위험 지역 등을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등 여름철 재해 대비에 철저한 준비를 기하도록 했다.

특히, 남양휴먼아파트 인근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 진행상황과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대규모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조속한 사업 시행과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순천시 임종필 안전도시국장은 "여름철 예상되는 재해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며 "혹서기 현장 대비책, 집중호우 피해 방지책 등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해 관내 공사장 및 안전취약 취약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예·경보 시설(525개소) 확충을 완료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구례군, '주민 소리함' 설치 운영

구례군은 12일부터 '주민소리함'을 통해 인터넷 사용 등이 어려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오프라인 창구를 개설하여 군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주민소리함' 운영은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각 마을회관 및 군·읍면 민원실 등 167개소에 소리함을

설치하여 군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월 10일 단위로 월 3회 소리함 의견을 수거하고 군수가 직접 확인 검토하여 주민불편, 건의 및 제안 의견 등을 파악해 열린 군정을 위한 소통 채널로 이용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인삼전문지도연구회 과제교육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인삼전문지도연구회의 제2차 과제교육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곡성군에서 개최되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와 옥과면 소재 인삼농가에서 실시된 이번 과제교육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급산·음성·양주·영주 등 전국 농업기술센터 소속 인삼전문가 및 관내 농업인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과제교육에서는 인삼 예정지관리, 하우스 인삼 재배요령, 하우스 인삼 고온피해 저감시설 운영 사례, 농업재해 대처기술 등에 관한 연구과제 및 학술발표에 이어 참석 시군별 하우스 고온피해 예방대책

과 효과 등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인삼전문지도연구회장은 "최근 하우스 재배를 통한 친환경, 유기농 인삼재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곡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재배하는 농가가 많으며 재배기술이 우수하여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다. 특히, 산간지형이 아닌 평지지형의 하우스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고온피해를 받기 쉬운데, 곡성군의 선진 농가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고온피해 저감시설을 갖추었기에 이를 벤치마킹 할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4기 운영자 선정

여수시는 지난 13일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4기 운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자는 총 18명으로 사회적 약자 3명, 인근지역 주민 2명, 청년층 7명, 일반시민 6명이다.

시는 지난 6월 27일 여수시문화원 3층에서 낭만포차 운영자 신청 접수를 했다. 그 결과 151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운영자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음식 품평회로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1차 평가의 경우 100명 원,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했다. 2차 평가는 전라남도 식품 관련 대학교수 10명으로 꾸러졌다.

지난 3일까지 진행된 서류평가에서는 지역 거주기간, 메뉴, 위생 등을 심사해 선발인원의 3배수인 50명을 선정했다.

지난 13일에는 1차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2차 품평회를 했다. 심사위원은 정결성, 창의성, 맛, 표현성, 대중성, 가격 적정성 등을 평가 후 현장에서 최종 운영자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제4기 낭만포차는 오는 10월부터 거북산대교 아래에서 운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낭만포차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청결과 맛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보성군, '지방자치발전 대상' 수상

행정혁신 부문서

보성군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부문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에서 주최한 '2019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 대상'은 매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업무를 평가하여 국가발전과 지방자치의 성장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해 시상한다.

보성군 민선7기는 취임 후 1년 동안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등이 주관한 각종 시책평가에서 47개 부문 수상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또한, 문화관광분야에서 제암산자연휴양림이 '한국관광의 별' 선정, '2018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으며, 재난안전평가에서 9개 분야 전문분야를 석권하며 국무총리 기공표창 '안전문화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보성=인구일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항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건기권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